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7월 17일(수) 19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7.17.(수)	담당부서	신남방통상과
담당과장	배성준 과장(044-203-5710)	담 당 자	박수정 사무관(044-203-5711)

일본의 대한(對韓) 수출규제는 아태지역 중심의 글로벌 무역에 큰 피해

- 산업부, 방콕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 고위경제관리회의(7.17.)에 참석하여 일본 수출규제의 철회 촉구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:성윤모)**는 7.17일 태국 방콕**에서 개최된 **동아시아 정상회의(EAS*) 고위경제관리회의**에 참석(수석대표 : 통상협력국장)하여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함

*** EAS(East Asia Summit) : 아세안 10개국+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, 미국, 러시아 등 18개국 참여**

< 동아시아 정상회의 고위경제관리회의(SEOM) >

- ㅇ 일시 : '19.7.17(수) 오후
- ㅇ 장소 :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앤드 방콕 컨벤션 센터(Centara Grand and Bangkok Convention Center)
- ㅇ 내용 : 지역 및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 공유, 경제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준비
- ㅇ 참석 : 아세안 10개국, 한중일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, 미국, 러시아 등 18개국 국장급 대표

* 우리측 수석대표: 산업부 윤상흠 통상협력국장

ㅇ 윤상흠 국장은 지역 및 세계 경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며,

- 상호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체계를 교란시켜,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,

-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,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의 관심을 당부함

□ 한편, 7.16일에는 한-아세안 고위경제관리회의에 참석하여 금년 11.25일~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등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함

< 한-아세안 고위경제관리회의(SEOM) >

- ㅇ 일시 : '19.7.16(화) 오후
- ㅇ 장소 :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앤드 방콕 컨벤션 센터(Centara Grand and Bangkok Convention Center)
- ㅇ 내용 : 한-아세안 경제협력방안, 경제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준비
- ㅇ 참석 :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국장급 대표

* 우리측 수석대표: 산업부 윤상흠 통상협력국장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통상과 박수정 사무관(044-203-57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